

## 1990년대에 패션의 복고풍에 관한 고찰 - 1960년대 Mode의 재현을 중심으로 -

류 숙 회 · 박 종 회\*

계명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교수, 계명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 A Study on Retro-look Fashion Appeared in 1990's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Revival of 1960's Mode -

Sook-Hee Ryoo and Jong-Hee Park\*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College of Home Economics,

Professor of Keimyung University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College of Home Economics,

Graduate Student of Keimyung University

#### 目 次

|                                     |            |
|-------------------------------------|------------|
| Abstract                            | 1. 실루엣     |
| I. 서론                               | 2. 디테일     |
| II. 이론적 배경                          | 3. 재질      |
| III. 1990년대에 재현된<br>1960년대 복식의 등장배경 | 4. 색상 및 문양 |
| IV. 1990년대에 재현된<br>1960년대 복식        | V. 결 론     |
|                                     | 참고문헌       |

####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a comparative study of in 1960s' retro look mode in terms of the past and present in order to find out in detail how it in the past is readjusted after it was appeared in the present.

For such a study, in the first place the contents of the dress and its ornament of a retro-look fashion was refined through some literature, and then, some works of the

dress and its ornament of a retro-look fashion was refined through some literature, and then, some works of the dress and its ornament revived in 1960s' mode were analysed, based on some fashion magazines at home and abroad like Bazaar, Fashion etc News in 1990s

After 1960s' retro-look mode which reappeared in 1990s was researched in terms of silhouette, detail, texture, color, and pattern, differences between those two periods of 1960s and 1990s and their cause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In the aspect of silhouette, it appears that the silhouette in 1960s is that of somewhat stiff, charming image in which Body is excluded and the silhouette in 1990s is that of a soft, feminine image in which Body is emphasized.

It was understood that the cause of such a delicate difference comes from the influences of the change in aesthetic senses or awareness, naturalism, and neo-feminism.

2. In the aspect of detail, it appears that the detail in 1990s is of an attempt to express in diverse images, compared to that in 1960s, and new images are created in 1990s by means of presenting entirely ill-matched images. The major cause of that is because of Antistandard fashion.
3. In the aspect of texture, it appears that a great feature is that the texture in 1990s is of that introduced, being changed in natural and high-class looks, compared to that of 1960s. It was reviewed that the major cause of it is because of a result from the influence of naturalism and the technical growth in various fields which has brought the development of dress material.
4. In the aspect of color, it appears that the color in 1990s is of an image of primary color which is far more sensual and feminine than that of 1960s. It was studied that the major cause of it comes from the influence of neo-feminism, etc.
5. In the aspect of pattern, it appears that the pattern in 1990s is of that of symbolism, transposition, and the eclectic feature of various modes which appear more deeply than that of 1960s. It was studied that the major cause of such changes is because of a trend of postmodernism which has brought the change of the spiritual structure different from that in the age of modernism.

In conclusion, it was understood that the retro-look fashion is of an expression technic of dress and its ornament in that no dress in the past is simply imitated, but new reconstitution is done by using the elements in the past. At the same time, it was clarified that even though the elements in the past are revived as they were, dress and its ornament is governed by the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s of the day, and with this proof it can be said that the fashion in each age is of a reflection of social phenomena of that age.

## I. 서론

현대사회는 고도의 과학 기술발달에 대한 인간의 고립감으로 인해 나타나는 반사회주의적 성격과 대중문화의 홍수, 급변하는 정치 경제에 대한 도전적인 특성을 가지며 그로 인해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원류, 전통성과 원시성, 문명이전의 시대에 대한 회귀를 지향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물질만능주의의 산업사회가 우리에게 안겨준 풍요로움의 뒷면에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과거의 향수에 대한 애착이 「자연주의」에 이어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복고주의, 토속성과 일맥하는 「복고풍」을 초래하게 되었다.

복고풍은 기계화, 도시화된 현대인들의 정신세계에 옛것에 대해 향수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고 인간의 감성과 정서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시대추세와 유행의 흐름 속에서 복고풍은 패션에서도 최근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는데 이것이 현대패션에 도입되어 어떤 형태로 회귀하며 반복하는가에 관한 연구는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복고풍 복식에 관한 선행연구로 그 대상시기가 19세기 이전까지는 다소 있었으나 19세기 이후의 현대패션의 재해석에 관하여 다룬 논문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00년대 이후 패션이 1990년대 패션에 재현된 mode 중 1985년부터 가장 두드러진 현상을 보인 60년대풍 복식에 중점을 두어 실루엣 뿐만 아니라 디테일, 재질, 색채, 문양면에서 복고풍 복식의 반복형태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II. 이론적 배경

복고풍은 패션 뿐만 아니라 건축, 문학, 예술 등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패션에서의 복고풍이란 말은 레트로스펙티브(retrospective)를 생략해서 레트로 룩(retro-look) 혹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으로 패션 리바이벌(fashion-revival)과 같이 사용된다. 이 과거와 현재의 절충은 1980년대 이후 패션의 특징이며 커다란 흐름이다.

복식사에서 보면 각 세기말에는 항상 레트로 현상이 짙게 나타나 과거를 회상하는 복고풍의 패션이 부활되곤 했다.<sup>1)</sup>

특히 1980년대의 최고의 특징은 1920년 이후 매 10년에 대한 향수와 그 스타일의 부활이었다. 이와 같이 과거에의 동경(nostalgia)은 과거의 복식 즉 20년대, 30년대, 40년대, 50년대, 60년대 등에서 영감을 얻어 새로운 면을 추가시켜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1985년 이후부터는 주로 그 촛점을 1960년대 패션에 맞추었다. 60년대는 바로 '유행'의 시작을 알리는 황금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음악, 의상, 헤어 스타일, 메이크업 등 모든 분야에서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중요한 유행 흐름은 바로 60년대에 모티브를 얻고 있다고 하겠다. 외형적인 것 뿐만 아니라 대담한 자기표현을 가능케 한 여성들의 자신감도 이 시대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면 60년대 무드의 부활은 여성정신의 발달에도 새로운 기여를 하리라고 본다.

다양한 패션 스타일의 복고풍 패션은 1900년대 이후의 현대패션의 재해석을 제외하고 크게

1) 김종복, 『패션 위드 컬렉션1』, (서울 : 도서출판시대, 1988), p.112.

나누어 그리이스와 로마시대의 고전적 스타일의 재현, 전원적인 주제의 재현, 중세에서 그 이후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낭만주의 시대에 입혀진 의상의 재현, 이국적인 민속복<sup>2)</sup>을 들 수 있다.

1980년대의 패션경향은 다른 3시대와는 달리 지각적 추세를 가지고 단순하게 과거를 모방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과거를 이용하여 더욱 새롭게 발전, 재생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즉 '역사주의', '복고풍'으로서의 새로운 시도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포스트 모더니즘 사조의 영향하에 고대 이집트로부터 최근 1970년대풍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현대패션에 도입되어 다양한 패션 스타일을 낳았으며 그 중 복고풍에 큰 영향을 준 핵심적인 사조라 볼 수 있다. 포스트 모던, 즉 아프터 모더니즘(after modernism)은 건축용어로서 기능, 효율, 합리성만을 추구하는 근대건축의 무미함을 배격하고 시각에 즐거움을 주는 디자인의 부각을 내세우는 것이 특징이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혁명적이고 도전적이었던 모더니즘의 형식들이 1960년대에 와서 사회구조가 산업화, 정보화, 다원화되면서 그것은 이미 기존의 것이 되어 버렸고 파괴되어야 할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에<sup>3)</sup> 모더니즘의 시대와는 다른 사고방식, 감정의 흐름, 행동양식 등 새로운 정신구조의 변환으로 건축, 문학, 미술과 같은 예술장르는 물론이고 사회, 심리, 철학 심지어는 신학에 이르기까지 정신 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 사조이다.<sup>4)</sup>

포스트 모더니즘이 처음 대두된 것은 건축분야였으며<sup>5)</sup> 특히 Venturi와 Jencks 그리고 Paolo Portoghesi 등은 저서를 통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론적 체계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Bruno Zevi라든가 Frederic Jameson같은 비평가들에게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별로 관심을 끌지 못한채 소비사회의 한 형태로서만 비취졌으며<sup>6)</sup> Heinrich Klotz같은 비평가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모더니즘이 수정된 형태로서 '제2의 모더니즘'이라고 명하기도 하였다.<sup>8)</sup>

복고 무드 스타일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중요한 기법의 하나로써 서구문화의 국제적 지배로 무시되어 왔던 민속복이나 소외된 지역의 복식 형태, 즉 주로 동양이나 아프리카 혹은 구미지역 전통복식의 재해석을 통해 신비적이며 공유한 이미지를 존중하는 원시성이나 인간 본능에 대한 관심을 포스트 모더니즘은 표명한다.<sup>9)</sup>

Shamask와 Mcfadden은 과거와 현재를 중첩시키는 방법으로 고대 그리이스, 아프리카 등의 디자인 요소를 도입하여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디자인을 응용하고 있다.<sup>10)</sup> 특히 Mcfadden은 동양풍의 튜닉, 중국의 바지, 아프리카의 색상, 주름잡힌 실크가운을 통해 문화의 교차성을 보여주었다.<sup>11)</sup> 이러한 전통적인 장르의 혼합 및 붕괴로 포스트 모더니즘을 표현하고자

2) R. Martin & Harold Koda, *The Historical Mode*(New York:Rizzoli, 1989), pp.7-15.

3) 김중복, op. cit., p.60.

4) 이기윤, 「현대 디자인에서 Post Modernism의 수용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p.5.

5) 홍종대·유태순, 「예술의 양식이 패션 스타일에 미친 영향」, 『산업미술』 제4집(1994), p.207.

6) Andreas Huyssen, *After The Great Divide*(Indiana:Indiana University Press, 1986), p.184.

7) E. Ann Kaplan, *Post Modernism and Its Discontents*(London:Verso, 1988), pp.13-29.

8) 김원갑, 「제2의 이식양식으로서의 포스트 모던」, 『Plus』, 1989. 12, p.139.

9) 정지현,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한 패션의 양식 및 그 변화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69.

10) Babaralee Diamonstein, *Fashion The Inside Story*(New York:Rizzoli, 1985), p.11.

11) Jane Mulvagh, *Vogue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London:Penguin Books Ltd, 1988).

하였다. 근래에 와서 많은 패션 디자이너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영향을 받은 복고풍 패션을 과거 스타일이나 예술의 양식을 재구성하고 변형시키는 방법으로 새로운 작품을 창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으로는 미 소간의 세력 균형이 깨어지면서 신민족주의가 태동, 그동안 모더니즘에 의해 무시되어 왔던 각지역의 특수한 문화나 전통들이 재해석됨으로써 이들이 가지는 신비적이며 원시적 요소가 인간의 본능을 자극했기 때문이라 하겠으며, 문화적 요인으로는 기존질서나 기성가치관에서 감성이 해방된 신세대들은 대중사회가 갖는 무미건조함, 인간성 상실에 대한 반론, 그들이 가지는 원초적 욕구를 전위적으로 표현하거나 세기말적인 요소들로 표현하기 때문이라 하겠다.<sup>12)</sup> 인간성 옹호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휴머니즘'을 지향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현대 미술에서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20세기말과 21세기 출발점의 패션 분야에서 큰 흐름으로 대두되고 있다.

### Ⅲ. 1990년대에 재현된 1960년대 복식의 등장배경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현대인들은 사고나 생활에 있어 단순하며 긍정적인 최신의 낙천주의로 귀환하려는 의지와 자연, 예술, 문화, 전통 등의 감정으로 돌아가려는 본능적인 경향을 가지게 됨으로써 복고풍 패션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그 중 1960년대 Mode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60년대와 90년대의 사회적 환경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사회환경 즉 문화적 배경, 사회적 배경, 경제적 배경 그리고 기술적 배경이 복식의 형태변화에 영향을 미치며 유행하는 의복의 형태는 그 시대의 사회환경을 가장 많이 반영한다.

1960년대에는 제 2차 대전에 의해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하였으며 그로 인해 생활의 기계화를 가져다 주었다. 예를 들면 생산기계의 자동화로 인한 직접적 인간노동의 삭감, 전기제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의 발달로 인한 생활의 노동력 삭감 등으로 나타났다. 1960년대는 석탄 동력으로 상징되는 공업화의 시대가 끝나고 경제의 주도 부문이 내구 소비재와 서비스로 옮겨간 '고도 대중 소비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60년대의 사회적 관심이 공급에서 수요에, 생산의 문제에서 소비의 문제로 바뀌어 새로운 경제성장 단계에서 나타나는 소비경제의 특징을 보여 준 것이다. 특히 전자공학의 발달이 초래한 통신기술은 방송이라는 새로운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낳았고 대중 소비사회에서 소비자극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레저의 대중화를 가능케 하였다. 이것이 현저하게 나타난 것은 라디오와 텔레비전의 보급으로써 대중문화에는 국경이 없어져 '서구화' 나 '미국화'보다는 '세계화'로써 귀결되었다.

이외에 60년대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싹튼 시기으로써 남녀평등의 원칙이 한층 더 발전하여 '성의 해방'을 가져왔는데 이 점에서 프랑스의 작가 보부아르의 저서 「제 2의 성」은 제 2차 대전 후 성의 철학에 깊은 영향을 끼친 작품으로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러한 1960년대의 사회전반적인 특징이 1990년대에도 나타나 패션의 경향에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에는 컴퓨터와 전자기술의 발달에 따라 위성방송, 문자방송, 케이블 TV 등 각종 뉴미디어와 함께 문자, 음성, 데이터, 영상 등을 복합처리하는 멀티미디어의 보급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환경의 변화를 맞이하였다. 또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쌍방향성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해져 노동의 효율화가 이루어졌으며<sup>13)</sup> 세계 각국이 동시에 유사한 감각의 정보를

12) 홍종대·유태순, *op.cit.*, p.214.

13) 『전자미디어사회』, 한국정보문화센터(서울:신광문화사, 1994), p.152.

<표 1> 1960년대와 1990년대의 유사성<sup>14)</sup>

| 유사성      | 1960년대     | 1990년대           |
|----------|------------|------------------|
| 기술혁명     | Electronic | Computer         |
| 소비주체     | Young      |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   |
| 동양의 관심   | 히피모드의 등장   | Nationalism      |
| 정보화      | TV의 전성기    | 컴퓨터통신, 네트워크시대    |
| 소비형태     | 소비문화사랑     | 파소비현상            |
| 스포츠의 패션화 | 매스미디어 발달   | 여가와 개성 중시        |
| 도덕관념     | 성개방화       | 패락의 추구(경제적 풍요로움) |

소유할 수 있어서 민족간의 고정관념이 사라졌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공통된 현상으로 10대의 돌풍이 일기 시작하였다. '대중'이라고 하는 개념의 주체가 30대에서 10대 또는 20대 초반으로 옮겨가고 있는 현상인 것이다. 또한 1990년대는 1960년대와 마찬가지로 스포츠의 대중화에 영향을 받은 스포츠 캐주얼의 붐이 나타났다. 프로야구나 농구 등 스포츠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여유있는 레저와 스포츠를 즐기게 하고 아울러 스포츠 감각의 복식형태를 일상 생활에 받아들여도록 유도하였다. 이 같은 스포츠 캐주얼웨어는 젊은 계층의 취향을 많은 부분에서 충족시켜주고 있으며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것이 특징이다.

1990년대는 도덕적 측면에서 보면 급속한 기계문명화로 인하여 인간성이 상실되어 회의와 불안정에 빠지게 되었으며 생활과 사고는 향락주의와 에로티시즘이 난무하고 감각적인 문구와 행위들에 치중된 경향을 띄었는데 이러한 사회현상의 영향이 자연과 인간본성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두 시대는 기술혁명, 소비주체, 동양에 대한 관심, 정보화, 소비형태, 스포츠의 패션화, 도덕관념 면에서 매우 유사한 사회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시대는 모두 기술혁신을 기본으로 국제화, 정보화가 진전되고 소비수준의 고도화를 통해 감성의 해방을 가져왔으며 소비의 주체가 젊은이들이라는 점과 감성의 해방, 그로 인한 개방감, 자유감이 1960년대의 향수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고풍 패션은 자연스럽게 발생되며 그 유형은 반복되어 발전되어가는 것이다.

#### IV. 1990년대에 재현된 1960년대 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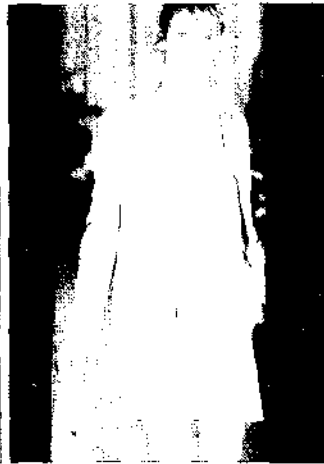
1960년대의 유행현상은 부유한 중산층외에 노동자 계층에서도 받아들여졌는데 그 경향은 완전히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젊고 싱싱하고 심플한 디자인 전개이다. 이 당시 복식은 팝이나 시각 예술(Pop Art, Op Art) 등 현대적 감각의 새로운 예술이 추구하였던 것과 같이 형태면에서 단순한 팝아트, 색채면에서 대담한 몬드리안 룩(Mondrian Look) 또는 기하학적 무늬로 특수한 효과를 내기도 하였다.

14) 홍종대, 「의상디자인의 유행분석과 예측」,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p. 37.

1960년대의 전반적인 복식형태는 「칼집」이라는 의미의 단부분은 타이트하지만 허리는 약간 툭툭하며 소매는 어느 정도 맞는 것이 특징인 쉬스드레스(sheath dress), A자와 같이 위는 좁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넓어지는 것이 특징인 자루모양의 드레스의 A라인 섹드레스(sack dress), 영국의 싱잉그룹인 비틀즈가 계기가 되어 시작된 몸에 꼭 맞는 싱글재킷과 팬탈롱 즉 나팔바지라고 불리는 벨보텀 팬츠 스타일의 비틀즈 룩(beatles look) 등이다. 60년대 말 일부의 젊은이들이 머리와 수염을 기쁨으로써 기성세대의 정책을 반대하는 히피족들이 나타났는데 이들의 패션 경향은 화려한 꽃무늬의 면직물 셔츠와 체형을 드러내는 밝은 색상의 진바지를 착용하였다. 이외에 반바지 중에서 가장 길이가 짧은 것으로서 몸에 꼭끼는 형태의 핫팬츠를 들 수 있다. 다음은 1990년대 패션에 1960년대 패션 디자인이 어떻게 반영되어서 재구성되어졌는가를 실루엣, 디테일, 재질, 색채 및 문양별로 나누어 관련된 디자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1. 실루엣

<그림 1>은 실루엣 면에서 복고된 형태로써 1995년 S/S컬렉션에서 Enrico Coveri가 발표한 것인데 1960년대 유행했던 쉬스 실루엣을 응용한 원피스 스타일의 일명 「쉬스 드레스」이다. 1990년대에는 이러한 쉬스 실루엣을 가진 쉬스 드레스가 부활되어 화제를 모았을 때 이것은 직선적인 윤곽선으로써 가슴의 돌출과 웨이스트의 잘록함을 강조하지 않고 옷자락의 넓이 그대로 몸통까지 직선으로 살린 실루엣을 말한다. 쉬스 드레스는 60년대와 마찬가지로 디자인이 매우 심플하고 간단한 것이 특징이며 좁은 어깨넓이와 허리선과 힙선에 약간 여유분을 주어 전체적으로 몸에 자연스럽게 꼭 맞는 실루엣으로써 60년대 쉬스 실루엣의 재현이다.



<그림 1> Enrico Coveri, 쉬스 실루엣 Fashion Today '95 S/S p.93.

<그림 2> Gianluca Gabrielli, 쉬스 실루엣 Bazaar, '95 p.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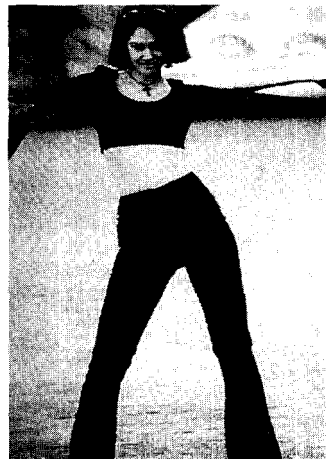
<그림 3> Yuki Tori, A라인 실루엣 Fashion Today '95 S/S, p.88.

1960년대의 쉬스 드레스는 기능주의의 의상조형으로 그에 적합한 벨트, 요우크, 다아트, 끼우기 등의 디테일 기법으로써 심플리시티 그 자체 만을 추구하는 간단한 형태의 드레스였으나 1990년대에는 쉬스 드레스의 단조로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 디테일 면에서 장식적 요소가 더 가미되어 디자인되었다. <그림 2>는 1995년 Gisnluca Gabrielli가 쉬스 드레스에 스팅글의 디테일을 사용하여 여성스러운 분위기와 1960년대와 유사한 글리터 소재의 스타킹을 신어서 1960년대 분위기를 더욱더 강조하였다.

1960년대 미니드레스의 재현은 쉬스드레스 외에 어깨가 좁고 알파벳의 A자처럼 자락이 넓은 형태의 A라인 실루엣을 그리는 섹드레스인데 1990년대에는 부드럽게 흐르는 듯한 실루엣으로써 재현된 의복형태 중의 하나이다. <그림 3>은 1995년 S/S 콜렉션에서 발표한 섹드레스로써 1960년대풍의 꾸덕꾸덕 감각이 희귀한 느낌의 실루엣으로써 재키오나시스와 당시의 피에르 가르맹, 꾸레쥬 등의 이미지가 엮보이는 작품이다.

<그림 4>는 Laura Biagiotti가 발표한 작품으로써 1960년대 Mode의 A라인 실루엣의 섹드레스를 재현한 것인데 웨이스트라인, 헴라인, 팔의 상완부 부분에 목재로 된 구슬 모양의 자연주의적 요소인 디테일이 특징이며 상반신은 몸에 꼭 맞고 스커트 부분을 플레어로 넣어 피트 앤 플레어 라인을 그리는 하이웨이스트 A라인 실루엣이다.

또한 A라인 섹드레스는 소재면에서 1960년대에 비하여 다양성이 보이는데 1990년대 패션 테마 중 우주에의 동경으로 나타난 자연주의의 영향으로 메탈릭 소재가 두드러진다(그림 5). 이러한 메탈릭 소재는 1960년대 후반 우주복 스타일 같은 전위 패션이나 1970년대 후반의 핑크 패션, SF적 패션에서 흔히 볼 수 있다. 1966년에 미국 유인 우주선 발사 계획의 발표로 시



<그림 4> Laura Biagiotti, A라인 실루엣, Fashion New, '95, p.159.

<그림 5> Rocco Barocco, Fashion Show, '94~'95, F/W p.422.

<그림 6> 벨보텀 팬츠, 월간 「멋」 '93. 3, p.138.



<표 2> 실루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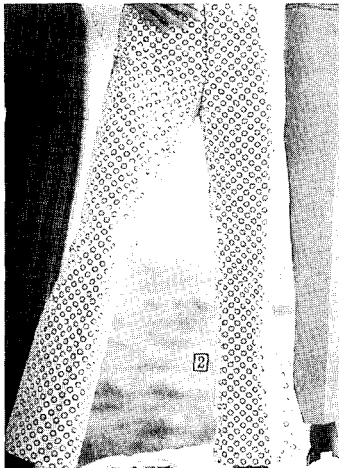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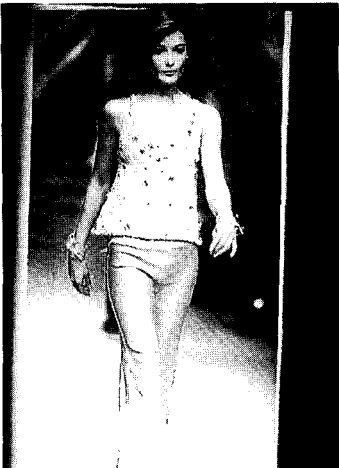
|                            | 1960년대   | 1990년대  | 원 인  |
|----------------------------|--|---|--|
| 쉬<br>즈<br>S                |  <p>&lt;그림 7&gt; Sears, '69S /S, p. 192.<br/>심플하면서 컨스트럭티브하고 귀여운 분위기의 쉬스 실루엣이다.</p>        |  <p>&lt;그림 8&gt; Fashion Today, '95 S/S, p. 93, 이영희<br/>부드러우며 페미닌한 분위기의 쉬스실루엣이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주의의 영향<br/>자연소재, 내추럴한 분위기</li> <li>· 클래식시즘 (classicism)의 영향으로 인한 장식주의</li> <li>· 미의식의 변화<br/>(체형배제→강조)</li> </ul> |
| 트<br>라<br>페<br>즈<br>라<br>인 |  <p>&lt;그림 9&gt; Sears, '69 S/S, p. 170.<br/>기하학라인의 건축적인 재단법의 영향으로 다소 하드한 트라페즈라인이다.</p> |  <p>&lt;그림 10&gt; Fashion Show, '94~'95, p. 126, Rifatzbek<br/>내추럴하게 흐르는 듯한 소재로 또렷한 윤곽이 없는 A라인이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주의의 영향</li> <li>· 미의식의 변화</li> </ul>  |

<표 2> 계속

|             | 1960 년 대  | 1990 년 대   | 원 인  |
|-------------|---|--|--|
| 텐트 라인       |  <p>&lt;그림 11&gt; Sears, '69 S/S, p. 378.<br/>가슴을 강조하지 않은 어린 소녀같은 분위기의 Tent라인 실루엣이다.</p> |  <p>&lt;그림 12&gt; Bazaar, '95, p. 119. Christian Dior<br/>페미닌하면서 경쾌한 분위기의 Tent라인 실루엣이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주의의 영향</li> <li>· 미의식의 변화</li> <li>· *네오편미니즘(neo-feminism)의 영향</li> </ul> |
| 파트 앤 플레어 라인 |  <p>&lt;그림 13&gt; Sears, '68 S/S, p. 94.<br/>귀엽고 체형이 배제된 표현이다.</p>                     |  <p>&lt;그림 14&gt; Fashion Show, '94~'95.<br/>내추럴한 분위기이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주의의 영향</li> <li>· 미의식의 변화</li> </ul>                                      |

\* 네오 페미니즘(Neo-Feminism) : 더 이상 페미니즘이 엘레강스나 섬세한 여성스러움으로 대변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스러움을 버리지 않는 것이 1990년대에 나타난 네오편미니즘이다.

<표 2> 계속

|           | 1960년대  | 1990년대  | 원 인   |
|-----------|---|---|---|
| 팬츠의 벨보텀 S |  <p data-bbox="336 1032 671 1218">&lt;그림 15&gt; Sears, '69 S/S, p. 254.<br/>남녀평등의 의미로서 입혀진 남성적 분위기가 강한 팬츠 실루엣이다.</p> |  <p data-bbox="699 1032 1034 1182">&lt;그림 16&gt; Fashion News, '95, S/S, p. 34, Chloe<br/>페미닌하고 내추럴한 분위기의 팬츠 실루엣이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주의의 영향</li> <li>· 미의식의 변화</li> <li>· 네오편미니즘의 영향</li> </ul> |

작된 우주복은 기술 문화 발전으로 인한 미래주의의 영향으로 보는데 90년대의 우주에의 동경으로 나타난 자연주의 사조의 메탈릭 소재는 그 계기가 60년대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 팬츠 스타일 중 실루엣 면에서 재현된 것은 판탈롱, 일명 '나팔바지'라고 불리는 벨보텀 실루엣과 극단적으로 짧고 몸에 맞는 핫팬츠 스타일이다. <그림 6>은 신축성이 뛰어난 저지를 소재로 한 벨보텀 팬츠와 T셔츠로써 60년대 분위기를 표현하였는데 벨보텀 팬츠는 상의의 아이템에 따라 스포티하고 아방가르드한 분위기에서 자극히 페미닌하고 포멀한 분위기 까지 다양하게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디자인 요소 중에서 실루엣 면에서의 복고된 디자인 형태들을 살펴 보았다. 동일한 실루엣의 디자인일지라도 소재에 따라 그 느낌이나 효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김<sup>15)</sup>의 「복식의 실루엣과 소재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전체적인 실루엣과 디테일은 직물의 외관상에서의 효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와도 일치한다. 시대를 초월하여 90년대에 다시 재현된 실루엣은 자연주의의 영향으로 인한 천연소재의 선호와 내추럴한 분위기를 추구하는 것이 그 미묘한 차이로 나타났다.

15) 김은희, 「복식의 실루엣과 소재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2. 디테일

디테일 면에서의 1960년대 영향은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중 당시의 어깨를 노출한 쾌활하고 섹시한 디테일인 아메리칸 슬리브(American sleeve)와 홀터넥크라인(Halter Necline)과 프론트 지퍼(Front zipper)가 많이 쓰이고 있다.

<그림 17>은 Thierry Mugler가 1990년 F/W 콜렉션에서 1960년대 Mode의 디테일적 요소를 응용한 것이다. 아메리칸 슬리브와 프론트 지퍼의 디테일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육체감각의 니트웨어, 핫팬츠의 넓은 벨트가 1990년대 분위기와 잘 조화되어 현재와 과거의 절충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1960년대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프론트 지퍼 디테일은 짧은 재킷의 프론트와 레이디스 재킷, 때로는 가디건의 앞판에서도 볼 수 있다. 디테일은 실루엣에 따라 크기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의복의 각 부분은 선, 형, 면, 여백 모두에서 상호 연관성을 갖고 조화롭게 변화되어진다.

## 3. 재 질

1960년대 말에는 유행에 대한 거부로 히피룩이 탄생하여 확실한 개념의 유행이 존재하였다. 즉, 군대의 제복이나 부르조아의 의복과는 상반되는 노동자의 작업복이나 블루진과 같은



<그림 17> Thierry Mugler, 프론트 지퍼 Collezioni, N. 16, '90 F/W, p.163.

서민적 감각과 집시 스타일, 야성적인 가죽 제품, 니트소재가 크게 유행하였다. 1993년 S/S의 패션테마인 「히피룩」의 부활과 함께 가죽, 진, 니트소재가 다시 주목을 받았다. 재질면에서의 재현은 이외에 1990년대에 두드러진 경향을 보인 「반짝인다」는 의미의 글리터 소재를 들 수 있다. 1960년대에 무대의상에서 비롯된 글리터 소재의 의상은 1990년대에는 금 은사로 짠 니트, 스광클, 비닐과 에나멜의 메탈릭 가공, 비단 소재에 오일 코팅 등의 빛나는 효과를 내는 기법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다. 색상도 실버와 골드 외에도 파스텔조가 등장하는 등 다채로운 전개를 보여주고 있다.



## 4. 색상 및 문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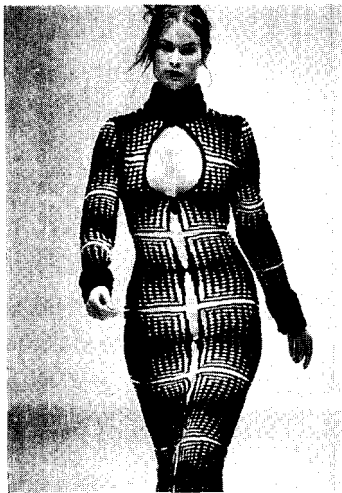
따라서 어떤 의상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형태의 구성, 재질의 구성, 색채의 구성을 동시에 생각해야 하며 디자인 원리에 입각하여 구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패션에 있어서 색상은 시대를 표현하

<표 3> 디테일

|         | 1960년대  | 1990년대  | 원인  |
|---------|---|---|---|
| 프런트지퍼   |  <p data-bbox="335 985 662 1131">&lt;그림 18&gt; So-en, '68. 5. p. 26.<br/>기하학적 표면 구성의 테크닉 중 한 요소이다.</p> |  <p data-bbox="694 985 1021 1131">&lt;그림 19&gt; Fashion Today, '95 S/S, p.98, Yuki Torri<br/>가죽, 비닐 소재에 주로 매치되어 신선한 분위기를 준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오펜미니즘의 영향</li> <li>· 안티스탠다드 패션의 영향</li> </ul> |
| 아메리칸슬리브 |  <p data-bbox="335 1646 662 1792">&lt;그림 20&gt; So-en, '68. 5, p.222.<br/>쾌활하고 섹시한 분위기이다.</p>        |  <p data-bbox="694 1646 1021 1859">&lt;그림 21&gt; Fashion Show, '94~'95, p.426, Paco Rabanne<br/>정장에서 케주얼까지 다양한 복장형태에 이용된 것이 특징이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티스탠다드 패션의 영향</li> </ul>                       |

<표 4> 재질

|       | 1960년대   | 1990년대  | 원인   |
|-------|--|---|--|
| 글리터소재 |  <p>&lt;그림 22&gt; So-en, '68. 5. p. 36.<br/>팝아트의 영향으로 짙고 발달하며 전원적인 분위기의 광택소재이다.</p> |  <p>&lt;그림 23&gt; Fashion Today '95. 2 S/S, p.99.<br/>섬세하며 여성스러운 페미닌한 분위기를 추구하는 광택소재이다. 금은색 외에도 파스텔조가 등장하였으며 다양해진 색상이 특징이다.</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주의의 영향</li> <li>· 네오편미니즘의 영향</li> <li>· 피복재료의 발달</li> </ul> |



<그림 24> Gaetano Novarra, 옵아트 문양 Bazaar '93~'94 N. 195 p.242.


하는 상징적 언어이다. 예를 들어 세기말 현상의 시대에 유행하는 색상은 한 부분에는 자연의 요소에서 온 색상 그룹(내추럴 색상과 중간 색조)를 등장시키며 다른 한 쪽에 원색적인 색상 그룹(보라, 노랑, 주황, 빨강 등)을 형성한다. 1960년대에는 팝아트의 영향으로 대담하고 강렬한 색상이 유행했는데 이러한 색상 경향이 1990년대에 경기침체와 급변하는 세계정세의 시대상의 반영으로 나타났다. 문양면에서의 복고된 경향은 시각적 효과를 프린트하여 인체와의 동적인 효과를 준 옵아트(Op Art) 문양과 흑백의 줄무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88년 미니의 부활과 함께 1960년대 이미지로 크게 부각되었다.

기하학문양과 더불어 옵아트 문양도 두드러졌는데 <그림 24>의 롱드레스 디자인의 옵아트 문양의 시각적 착시효과가 그 특징이다.



<표 5> 색상

|        | 1960년대  | 1970년대  | 원 인                 |
|--------|---|---|---------------------|
| 선명한 원색 |  <p>&lt;그림 25&gt; Sears, '68. S/S, p.95.<br/>팝아트의 영향으로 젊음을 표현하는 선명하고 강렬한 색상이 유명하다.</p> |  <p>&lt;그림 26&gt; Fashion News '95 S/S, p.72.<br/>경기침체로 인한 불안정한 시기에 등장하는 강하고 감각적인 원색이 유행한다.</p> | <p>· 네오편미니즘의 영향</p> |

<표 6> 문양

|       | 1960년대  | 1990년대  | 원 인                  |
|-------|---|---|----------------------|
| 플라워 위 |  <p>&lt;그림 27&gt; Sears, '68 S/S, p.128.<br/>여성스럽고 귀여운 분위기의 꽃문양이다.</p> |  <p>&lt;그림 28&gt; Fashion News '95 S/S, p.88, Junko Shimada<br/>문양이 훨씬 커지고 자연주의의 상징성으로 표현된 것이 많다.</p> | <p>·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p> |

<표 6> 문양 계속

|                       | 1960년대  | 1990년대  | 원 인  |
|-----------------------|---|---|--|
| 지<br>오<br>매<br>트<br>릭 |  <p data-bbox="335 985 670 1142">&lt;그림 29&gt; 「패션워드 콜렉션 1」 '65, p.52, 앙드레 꾸레쥬<br/>모더니즘의 단순미를 표현하였다.</p> |  <p data-bbox="694 985 1029 1176">&lt;그림 30&gt; Bazaar, '94 N. 205, Atelier versace<br/>모더니즘의 단순미에 자연의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p> | <p data-bbox="1061 459 1284 571">·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주의 및 절충주의 영향</p> |

## V. 결 론

복고풍 복식의 반복 형태에 관한 고찰을 목적으로 1990년대에 나타난 복고풍 복식 중 1960년대 mode를 중심으로 하여 실루엣, 디테일, 재질, 색채 및 문양 별로 살펴보고 두 시대의 차이점과 그 원인에 관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실루엣 면에서 살펴보면 1960년대는 체형이 배제된 다소 딱딱하고 귀여운 분위기의 실루엣이며 1990년대는 체형을 강조하여 부드럽고 페미닌한 분위기의 실루엣으로 나타났다. 그 미묘한 차이의 주된 원인은 미의식의 변화, 자연주의의 영향, 네오편미니즘(Neo-Feminism)의 영향 등으로 고찰되었다.
2. 디테일 면에서는 1960년대에 비해 다양한 이미지로써 표현을 시도하였으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를 연출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된 원인은 1990년대 이후 패션의 특징이기도 한 안티스탠다드(Antistandard) 패션의 영향으로 고찰되었다.
3. 재질면에서는 1960년대와 비교하여 자연스럽게 고급스럽게 변화되어 패션에 도입된 것이 큰 특징으로 나타났다. 그 주된 원인은 자연주의의 영향과 여러 분야의 기술적 성장이 피복재료의 발달을 가져온 결과라 고찰되었다.



4. 색상면에서는 1960년대의 젊음을 표현한 원색에 비하여 훨씬 감각적이고 페미니즘한 원색의 이미지로 나타났다. 그 주된 원인은 네오편미니즘의 영향 등으로 고찰되었다.
5. 문양 면에서 살펴보면 1960년대에 비해 상징성, 전위성, 여러 양식의 절충성이 더 짙게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모더니즘의 시대와는 다른 정신구조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 사조인 포스트모더니즘이 주된 원인으로 고찰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복고풍은 단순히 과거를 모방하기보다는 과거의 요소를 이용하여 더욱 새롭게 재구성하는 복식의 표현기법임을 알았고 동시에 과거의 요소가 동일하게 리바이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 환경에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이 증명됨으로써 각시대의 패션은 그 시대의 사회현상의 반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종욱, 「패션워드콜렉션 1. 2」, 서울:시대, 1988 백영자, 류효순, 「서양복식문화사」, 서울:경춘사, 1989.
- 한국정보문화센터, 「전자미디어사회」, 서울:신광문화사, 1994.
- 김은희, 복식의 실루엣과 소재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이기윤, 현대디자인에서 Post Modernism의 수용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정지현,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한 패션의 양식 및 그 변화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홍종대, 의상디자인의 유행분석과 예측,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 홍종대, 유태순, 「예술의 양식이 패션스타일에 미친 영향」, 「산업미술」제4집, 1994.
- Andreas Huyssen, *After The Great Divide*, Indiana:Indiana University Press, 1986.
- Babaralee Diamonstein, *Fashion The Inside Story*, (New York:Rizzoli), 1985, p. 11.
- E. Ann Kaplan, *Post Modernism And Its Discontents*, London:Verso, 1988.
- R. Martin & Harold Koda, *The Historical Mode*, New York:Rizzoli, 1989.
- Jane Mulvagh, *Vogue History of 20th Century Fashion*(London:Penguin Books Ltd, 1988).
- So-en '68. 5. Sears '68 S/S, '69 S/S
- Fashion News '91 S/S(Vol. 8), '95 S/S(Vol. 24)
- Fashion Today '95 S/S
- Fashion Show '94-'95 F/W
- Bazaar '91-'92 F/W(N. 178), '93-'94 F/W(N. 195), '95(N. 207)
- COLLECZIONI '91-'92 F/W(N. 22)
- 월간 「멋」 '93. 2.